



“結核문제는 아직도 後進國?”

결핵 根絶 위한 지원사업 펼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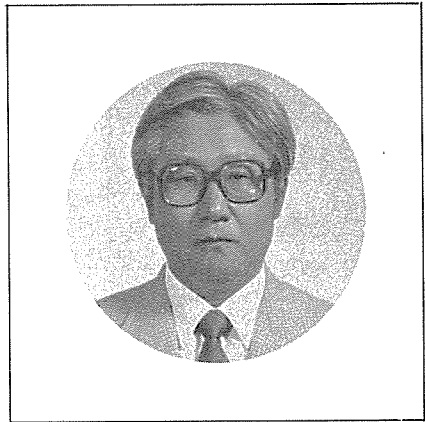
『1882년 로버트 코호의 結核菌발견이후 100여년동안 전세계의 결핵근절사업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결핵은 아직도 世界人類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保健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大韓결핵 및 호흡기學會 洪永杓회장(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은 美國이나 日本, 유럽등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이 높은 수준이며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뒤떨어지는 인근 東南亞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정이라고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간 결핵퇴치사업을 정부시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유병률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한 많은 사람에게 감염, 발병하고 이들이 또 감염원 구실을 하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지난 85년에 실시한 전국결핵실태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결핵문제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5세이상 인구의 결핵유병률이 2.2%에 달하고 있어 아직도 80만명에 달하는 활동성 환자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0대 死因중에 유일하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으로 결핵만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保社部와 大韓결핵협회가 지난 65년이후 85년까지 매 5년마다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 결핵실태 조사결과 엑스선상 활동성



洪永杓회장

폐결핵 유병률은 5세이상 인구중 65년의 5.1%에서 85년에 2.2%로, 그리고 균양성 유병률도 0.94%에서 0.44%로 각각 5%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감소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환자실수의 감소율이 유병률의 감소에는 못미치는 추세라고 밝힌다.

특히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日本이 4.5명, 台灣이 13.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2명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가 다른 모든 전염성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를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지고 「결핵은 이미 해결됐다」라고 하는 안이한 경시풍조가 널리 퍼지고 있어 결핵퇴치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지요』

洪원장은 우리나라의 결핵관리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사부에서 대책수립 및 실시계획을 각 구·시·군 보건소에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대한결핵협회가 정부의 결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계몽, 엑스선 이동검진, 결핵균검사, 부속의원을 통한 결핵진료, 국내의 결핵관계자에 대한 훈련과 아울러 결핵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학술단체인 대한결핵학회도 결핵관리 사업에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사업으로 결핵병 퇴치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지난 61년 결핵협회 학술부로 부터 독립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학회는 지난해 결핵유병률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폐암, 만성폐쇄성질환 등의 증가로 이들 호흡기질환에 대한 연구에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명칭을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로 개칭함으로써 결핵병연구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에 대한 연구까지도 폭넓게 수용하게 되었지요』

洪원장은 미국의 경우 결핵학회로 출발하여 현재는 흉부학회로 바뀌었고 국제항결핵연맹도 국제항결핵 및 호흡기질환연맹으로 개칭하는등 국제추세에 맞춰 학회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배경설명을 하면서 결핵병 근절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호흡기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학회는 특히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기초와 임상연구를 위한 학술연구비 지원제도를 마련, 이 분야 발전은 물론 회원들의 연구의욕 고취에도 힘쓰고 있다고.

이밖에도 醫科大學을 순회하면서 月例集談會 및 연수강좌의 개최, 학술지인 「결핵 및 호흡기질환」(계간)의 발간사업과 결핵진료지침서 작성, 醫大生들의 휴연실태조사등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결핵전망에 대하여 추정해 보면

오는 2천년에는 엑스선상 유병률은 1.0%정도, 그리고 전염성 환자의 유병률은 0.27%정도로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때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0명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洪원장은 이같은 유병률은 日本에서 2003년의 전염성 결핵환자의 유병률을 0.1%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현재 선진국의 유병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여전히 결핵문제가 매우 중요한 보건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결핵문제 경시풍조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시킴으로써 각계각층의 국민이 결핵퇴치를 위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범국민적인 계몽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洪원장은 결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으로 결핵대책을 위한 적절한 시책과 이에 따른 소요재원의 투입은 물론 △일반 병·의원의 국가결핵관리사업 참여유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전문의료인력 양성 △환자발견사업 확대 및 치료환자의 철저한 관리등 결핵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핵의 발병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엑스선 검사를 비롯 객담검사, 투베르클린반응검사 등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기침과 가래가 3주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洪회장은 결핵은 발병후의 치료대책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게 하는 예방 역시 중요하다면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AIDS환자가 많지 않지만 결핵보균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AIDS발병률만큼 결핵발병률도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결핵근절을 위하여 더 한층 깊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記>